

### 들어가면서

- 보통은 이사야를 3 등분: 1-39; 40-55; 56-66.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어떤 형식적 표현이 없다.
- 문학적/신학적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다: 이전 것(former things)과 새 것(new things). 역사적 관점에서 바빌론 포로기 전후를 가리키며, 곧 바빌론 포로기 마지막 시점이다(사 43:18-20).
- 역사적 상황: 페르시아와 고레스
  - 해방자 고레스왕 (에스라 1:1-4// 역대하 36:22-23; 이사야 52:11-12)
  - 고레스은 야훼의 “목자”, “메시아” (이사야 44:28; 45:1)

### A. 주요 주제

- 회복의 선언(40:1-11)
  -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1) 문학적/신학적 전환점. 포로(39:5-8)와 회복(40:1-11)
    - MT 는 천상회의를 배경으로 하여, 야훼 하느님이 천사 혹은 신들을 향해 선포. LXX 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형식 (40:2).
    - 바빌론 포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죄값으로 배나 받았다는 점은 불만의 소리가 아닌, 다른 의미를 추구. 야훼의 secret plan=> 55:6-9
  - 40:3 절 이해
    - MT: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주의 길을 예비하라”
    - LXX: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 NT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1:3)
  - 새로운 출애굽
    - 출애굽 용어=> 광야에 길을 낸다. 바다가 아닌 사막을 통한 탈출, 곧 출바빌론이다.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18-19)
  - 복음(good news=> gospel)
    - 이사야 40-66 장의 주제 (40:9; 52:7; 60:6; **61:1**). 특히 사 61:1=> 눅 4:16-21
    - 복음이란 야훼 하느님의 통치를 재확인(=> 하느님 나라, 막 1:14-15).
- 종의 노래 (Servant Songs): 42:1-4; 49:1-6; 50:4-9; 52:13-53:12
  - 개인 (42:1-4): 야훼가 왕위를 가진 자(royal figure)에게 말함
    - 다윗의 뿌리: 사 11:1-9 (=> 렘 33:15)
    - 고레스왕(44:28; 45:1). 문맥상(41:25-29)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은 바빌로니아를 함락시키고 539 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고레스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후에 유대지도자—여호아긴 혹은 여룹바벨—에게 적용 (학 2:23; 슥 3:8).
  - 집단: 이스라엘
    - 49:3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cf. 사 41:8; 44:1-2, 21; 45:4)
    - 하지만 종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하느님께 돌아오게 함(49:5)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기 보다는 그 일부 신실한 사람들.
  - 대속신앙(53:1-10)
    - 종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짐. 종이 개인이라면, 53:1 절 “우리”는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종이 집단(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 바빌론 포로의 의미를 다시 이해 (cf. 사 40:2) => 포로 기간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변형된 이유는 (이방)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 Cf. 에스겔 37 장.
    - 고난의 긍정적 의미=> 초기 기독교의 예수 이해 (행 8:34)
- 새로운 문제점 등장 (56 장-66 장)
  - 누가 공동체 일원인가?
    - 이방인과 고자도 (56:3-7)=>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56:7). Cf. 신 23:1-8; 겔 44:9

- 행함이 있는 믿음(58 장).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
- 제사 행위에 대해
  - 사 66:3, "소를 잡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양을 제물로 바치는 자, 개의 목을 꺾는 자, 돼지의 피로 봉헌제물을 바치는 자, 분향을 드리는 자, 우상을 찬송하는 자,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 한글성경 (LXX 그리고 대부분 영어성경)=>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고* ....  
(*같고*[ὡς]는 본문에는 없음)
  - 타나크(JPS)=> "As for those who slaughter oxen and slay humans" (이 경우, 소를 잡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가 한 사람. 콜린스도 이처럼 이해=> "소를 잡는 사람은 사람도 죽인다", 311.)
  - 또는 그냥 히브리문법을 따라, 여러 행위를 나열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자신의 길을 택했다는 말이 제시하듯, 사람들이 각자 멋대로 행함.

## B. 신학 다시하기

- 야훼만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사상(monotheism) 등장
  - 기존 신앙/신학사조에 대한 도전
    - 기존의 신앙은 야훼의 패배
    - 야훼가 생사화복의 근원(45:7-8). 다른 신은 없다(43:10-11)
  - 이방인도 야훼를 섬김
  - 여전히 이스라엘은 선지자/제사장 역할
    - 종의 노래=> 이스라엘
    - 에스겔과의 차이. 에스겔 40-48 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엄격한 구분
- 전통 다시 이해하기
  - 다윗전통
    - 51:1-2 는 전통적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던 잔치에로의 초대장
    - 왕이 없는 현실에서, 백성들이 왕의 역할.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이 곧 다윗계약의 완성.
    - 55:7 에서 "약인"과 "불의한 자"는 바빌론에서 마독을 섬기던 자를 일컫는다.
  - 아브라함/사라 전통: '해석학적 삼각형'
    - 에스겔 33:24-29
    - 이사야 55:1-2
  - 이사야와 신약성서
    - 이사야 7:14. 아하스가 당면한 역사적 위기상황(734-732 BCE)에서 본문의 관심은 처녀잉태도 또 그 아이도 아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다." 짧은 시간—maybe a couple of years—내에 위기가 사라진다는 초점. 하지만 신약성서의 저자는 히브리성경보다는 칠십인역을 읽었고, 거기에는 처녀(ἡ παρθένος)로 번역. 처녀잉태설로 한 발 다가섰다(마 1:23).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그리고 관련이 없는) 해석이지만, 한 성서/전통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됨을 잘 보여준다.
    - 이사야 40:3-5. 히브리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오는 것을 출애굽 모델을 빌어 표현한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야훼(주)를 예수(주)에 대입시킴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이 과정에서 천사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세례요한이 되며, 그는 엘리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려진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성서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라"로 바뀌 읽게 된다. 이것 역시 칠십인역을 따랐다.

- 이사야 52:13-53:12. 이미 살펴본대로 히브리성서 본문에서는 “종(עַבְד, servant)”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계기로 삼는다 (행 8:32-33).

### 결론/평가

- ✚ 모든 전통과 예언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하에서 일어났기에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historical meaning—what it meant). 그러나 그 전통/성서는 또한 후세에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또 주어야 하기 때문에—부차적인 의미를 탄생시킨다. 신학적 의미다(theological meaning—what it means *here and now*).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냐(either-or)가 아닌 이것도 저것도(both-and) 입장을 취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정체성 확인이다.
- ✚ 소위 제 1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는 야훼에 대한 믿음 유무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옳바른 대처 방안이 보다 중차대한 포로기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신앙공동체의 궁극적 관심사다.
- ✚ 이런 이해가 40 장 이후 이사야서를 확장하게 된다. 새로운 질문, 목소리가 이사야서에 첨가된다. 이것이 신학 다시하기며, 이를 통해 옛 전통이 새로운 환경에서 의미있게 살아난다. 은유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death and rebirth. 죽음과 부활—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  
생각해 보기

1. 예언과 역사적 상황 관계에 대해.
2. 성서/전통과 예언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적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